

다니엘서 - 세 번째

이중 시각

Jeff Pippenger

2023-11-25

우리는 현재 다니엘서에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져 있지만, 보려는 이들에게는 보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던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환상, 곧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도록 내어 주어지는 일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다니엘 8:13

그 구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앞선 열 절에서 다니엘이 방금 본 예언적 역사 환상과의 구별을 드러낸다. 이 장의 1절과 2절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은 해와 그가 올라 강가에서 그것을 받았음을 밝힌다. 3절부터 12절까지 그는 예언적 역사의 환상을 '본다'. '그때' 그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대화를 '듣는다'. 15절에서 그는 방금 '본' 그 예언적 역사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구하기 시작한다. 3절부터 12절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가 '들은' 하늘의 대화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두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16.

13절의 질문은 '그 환상이 얼마 동안일 것이냐'이며,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16절에서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와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다.

나는 올라이 강 두 강둑 사이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 8:16.

서로 다른 두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 단어 "vision"으로 번역함으로써, 레위기 26장의 "seven times"는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서도 감춰진" 것이 되었다. 성경을 곁핥기만 하는데 만족하는 학생들은 이 서로 다른 두 히브리어 단어를 같은 단어로 간주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겉만 훑어보는 것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려 깊은 탐구와 진지하고 고된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 속에는 표면 아래에 감추어진 귀한 광택과 같은 진리들이 있다. 사람이 금과 은을 캐듯 그것들을 캐내면,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된다. 진리의 증거가 성경 자체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풍성하고 감추어진 의미를 펼쳐 주셔서, 우리의 이해에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신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어리석은 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39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사실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8장에는 "환상"으로 번역된 서로 다른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스스로에게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을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된다. 옛 격언에 따르면, "보려 하지 않는 사람만큼 눈먼 사람은 없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모든 원칙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한 생각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이따금씩 하거나 단편적으로 공부해서는 얻을 수 없다. 그 위대한 진리의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독자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보화 가운데 많은 것들은 표면 아래 깊이 놓여 있으며, 부지런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 위대한 전체를 이루는 진리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사야 28장 10절)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

"이렇게 찾아내어 함께 모아 보면, 그것들이 서로에게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을 설명하며, 모든 진리는 다른 어떤 진리의 전개이다. 유대 경륜의 예표들은 복음을 통해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모든 원리는 제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조는 설계와 실행에 있어 그 저자를 증언한다. 이러한 구조는 무한하신 분의 지성 외에는 어느 누구의 생각으로도 구상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 교육, 123.

"vision"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8장에서 열 번 나오지만, 그 열 번에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두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단어들의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만약 그것들이 같은 뜻이라면, 다니엘은 그 열 번 모두에서 둘 중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두 단어를 썼는데, 그 두 단어가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가 '들은' 환상을 가리킨다. 8장 13절에서는 "vision"으로 번역된 단어가 *châzôn*이며, 이는 "광경", "환상", "꿈" 또는 "신탁"을 뜻한다. 나는 그 정의와 다니엘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추어 그것을 "예언적 역사 환상"이라고 부른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다니엘은 "환상이 내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두 번이나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모든 용례는 히브리어 단어 "*châzôn*"이다. 이어 15절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그 동일한 단어를 아마도 가장 중요한 때에 사용하는데, 그는 "내가"...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구하였을 때"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그 *châzôn* 환상을 본 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이것은 이 장에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감추어져 있는 것과 크게 관련되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17절과 26절에서도 *châzô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니엘서 8장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열 번 등장하며, 그 가운데 일곱 번은 히브리어 *châzôn*이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번역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네 번 사용한다. 그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mar'eh*이며, '모습'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8장에서 *Châzôn*은 일곱 번, *mar'eh*는 네 번 발견되며, 이 둘을 합하면 다니엘서 8장에서 영어 단어 "vision"이 등장하는 열 번을 나타낸다. 일곱과 넷을 더하면 열한 번이

되지만, 다니엘이 mar'eh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들 중 한 번은 그 정의 그대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곧 15절에서 다니엘이 예언적 역사에 관한 Châzôn 환상의 "뜻을 구할" 때, 그의 앞에 "사람의 모양과 같이" 서 있었다. 여기서 "appearance"가 mar'eh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은 mar'eh를 네 번 사용했으며, 그중 한 번은 그 기본 정의인 "appearance"에 따라 번역되었고, 나머지 세 번은 "vision"으로 번역되었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3절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추가된 유일한 단어(sacrifice)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감은 그것이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또한 그 추가된 단어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 추가되었다"고도 말한다. 바로 같은 장에서 서로 다른 히브리어 두 단어가 동일한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 두 단어의 구별을 인식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또 내가 올라이 강 양쪽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 8:15, 16.

다니엘이 방금 '보았던' 'châzôn 환상'의 '뜻을 찾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방금 '들었던' 'mar'eh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알리신다. 다니엘은 예언적 역사에 관한 환상을 이해하길 원했지만, 13절에서 Palmoni(말하던 그 어떤 성도)로 지칭되신 그리스도는 가브리엘에게 'châzôn 환상'이 아니라 'mar'eh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지시하셨다. 15절과 16절에서 가브리엘에게 주어진 분명한 임무는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습'을 뜻하며, 이는 다니엘이 이해하길 원했던 예언적 역사에 대한 환상이 아니다. 가브리엘의 임무 지시를 인지하지 못하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눈앞에 뻗어 보이는데도 숨겨져 있다.

26절에서는 "환상"으로 번역되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절에 함께 나오며, 그 절은 다니엘의 "일곱 때"에 관한 증언의 진리를 여는 핵심 열쇠들 중 하나가 된다.

네게 전해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 그러므로 그 환상을 봉하여 두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8:26.

26절에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mar'eh 환상, 곧 "모습"을 뜻하는 것이지만, "봉하여 두라"고 된 환상은 예언적 역사에 관한 châzôn 환상이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이 두 환상의 차이를 분리하여 식별하게 하는 기준이다. 이는 성경이 형성되는 데 작용한 인간적 요소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를 통해 드러난다. 그 인간적 요소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뿐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이들도 포함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그 인성은 죄를 지은 뒤의 아담으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따라 내려왔다.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는 결합된 신성이 육체에 존재하는 모든 한계를 언제나 압도하고 극복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1-3.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며, 26절에서도 그렇듯이 언제나 “저녁과 아침”으로 번역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거듭 말한다. 사실, 그리고 모든 사실에는 그 나름의 함의가 있으며(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경에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이 26절에서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번역되지 않은 유일한 곳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다.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저녁과 아침”이라는 구절이 단순히 “날”로 번역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4.

다니엘서의 같은 장에서 열두 절 뒤에, 히브리어 구절 "evening and morning"은 늘 그렇듯이 번역된다. 그러나 재림주의 중심 기둥이자 기초가 되는 그 구절에서는 그 표현이 그냥 "days"로 번역되어 있다. 무슨 영향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눈에 띄는 모순을 낳게 했는가? 그들은 26절에서 그 표현을 성경의 나머지 모든 곳에서의 용례와 일치하게 번역했다. 그러나 26절에서 열두 절 앞인 14절에서는, 그들의 인간성이 13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특별한 구별을 두었다. 그리고 13절의 질문에는 성경에 더해져서는 안 될 단어 하나(sacrifice)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14절이 매우 심오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돋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해시키도록 지시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도 드러내셨다.

16절에서 예수는, 다니엘이 예언적 역사의 châzôn 환상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이해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26절은 “말해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 것”이라고 말한다. châzôn 환상은 예언적 “보는” 환상이었지만, mar'eh 환상은 “말해진” 것이었다. 그것은 14절에서 Palmoni가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말했을 때 말해진 것이다. 26절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이 “말해진” 환상임을 밝혀, 다니엘 8장의 두 환상의 구별을 드러낸다. 다니엘이 “보았고” 이해하기를 원했던 예언적 역사의 환상은, 다니엘이 “들었던” “말해진” 환상과는 달랐다. 더 중요하게는, 다니엘이 “들었던” 그 환상이 바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할 환상이었다.

성경의 기록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니엘서 8장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열 번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눈으로 본 환상과 귀로 들은 환상의 구별을 감추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의도가 다니엘이 눈으로 본 환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귀로 들은 환상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는 점을 드러내는 강조가 흐려졌다. 이제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가까이 오자 나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이 환상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느니라.” 그가 내게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으나, 그가 나를 만져 일으켜 세웠다. 그가 또 이르되,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한 때에 끝이 있으리라.” 다니엘 8:17-19.

이제 가브리엘은 참된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의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는 먼저 예언적 역사의 환상, 곧 châzôn 환상이 '끝 때'에 있을 것임을 알린다. 그런 다음 다니엘이 예언적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져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팔모니(그리스도)가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저녁과 아침의 mar'eh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말하며 가브리엘에게 시키신 일이다. 가브리엘은 다니엘로 하여금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있다! 그것은 가브리엘이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듭 증언하고 그들의 글에서 사용하도록 이끌었던 바로 그 예언적 기법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 그 기법은 "줄에 줄을 더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다.

Uriah Smith의 저서 "Thoughts on Daniel and the Revelation"(모든 재림교인들, 심지어 그들의 이웃들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책)에서 Smith는 다니엘서 8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정한 때에 끝이 있을 것이며, 진노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그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일반적인 진술과 함께, 그는 환상의 해석에 들어간다. 그 진노는 일정한 기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자신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불경하고 사악한 통치자'에 관하여 명령하셨다: '면류관을 벗기고, 왕관을 벗겨라. ... 내가 그것을 뒤엎고, 뒤엎고, 또 뒤엎을 것이니, 그 권리가 그의 것인 이가 올 때까지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5-27, 31.

바로 이것이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다; 성소와 군대가 짓밟힐 그 기간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의 지배 아래에 놓였을 때 보관은 제거되고 면류관은 벗겨졌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또 헬라인들에 의해, 또 로마인들에 의해 연이어 뒤엎어졌는데, 이는 선지자가 그 말을 세 번 반복한 것과 상응한다. 그 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온 지면으로 흩어졌고,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후손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 권세들 아래에 복종해 있으며,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그 보좌의 정당한 상속자이신 메시아, 평강의 왕자께서 오실 때까지—그러할 것이며, 그때 그것이 그분께 주어질 것이다. 그때 진노는 그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 주려 한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01, 202.

스미스가 지목하는 '진노'는 기원전 677년에 앗시리아인들에 의해 므나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시작되었다. 그런데 스미스는 기원전 586년의 시드기야 폐위를 19절의 '진노' 기간의 기점으로 삼는다. 스미스는 그 절이 '진노의 마지막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단지 '진노'로만 취급한다. 그러나 '진노의 마지막 끝'이 있다면, 문법과 논리는 최소한 '진노의 첫 번째 끝'도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스미스는 70년 포로기가 기원전 606년 느부갓네살이 여호야קים을 처음으로 공격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진노' 기간의 기점은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 곧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대로 행해진 공격으로 보았다.

“우리는 그의[다니엘의] 초기 생애에 대하여 다른 어떤 선지자의 경우보다도 더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출생과 혈통은 그가 왕족의 계통, 아마도 당시 매우 번성해 있던 다윗의 집안에 속하였다는 점 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는 주전 606년, 곧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일년에 유다의 고귀한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때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아직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그 직후에, 그리고 조금 뒤에는 오바다가 예언을 시작하였으나, 이 두 사람은 모두 다니엘의 길고도 찬란한 생애가 끝나기 여러 해 전에 그들의 사역을 마쳤다. 그 뒤를 이은 선지자는 단지 세 사람뿐이었으니, 곧 주전 520-518년에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선지자 직분을 수행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서, 그는 주전 397년경에 잠시 활동하였다.” 우라이어 스미스, Daniel and the Revelation, 19.

스미스는 19절의 "진노"를 하나의 기간으로 올바르게 규정했다. 그는 그 기간을 다니엘 8장 13절과 일치하게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때로 올바르게 규정했고, 끝나는 시점을 1844년 10월 22일로 올바르게 특정했다.

스미스는 부분적으로는 옳았지만, 그의 예언 해석에 특징적인 방식을 따름으로써 진리를 놓쳤다. 그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역사에 의해 이끌리도록 했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예언의 말씀이 이끌도록 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성경으로 예언적 역사를 규정하게 한다면, 역사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갖게 된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에게 패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다. 사람은 무엇에게든지 지면 그에게 매여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므낫세는 기원전 67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유다는 정복되어 예속되었다. 이것이 화잇 자매가 옳다고 인정한 1843년과 1850년 도표 모두에 표시된 출발점이다. 스미스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서부터 다니엘 8장 13절의 "짓밟힘"을 시작한다고 본다. 시드기야는 점진적인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화잇 자매는 바벨론에서의 므낫세의 포로됨이 앞으로 올 일의 "보증금"이었다고 지적한다. "보증금"은 계약금으로서, 이후의 추가 지불이 뒤따르는 구매의 시작을 표시한다.

선지자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경고와 권면을 계속했으며, 두려움 없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기별들은 멸시를 받았고, 배도한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을 경우 백성에게 닥칠 일을 보여 주는 징표로, 주께서는 그들의 왕이 앗수르 군사들의 한 부대에게 사로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그들의 임시 수도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환난이 왕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니, 그분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탄원을 돌아보시며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알았다." 역대하 33:11-13. 그러나 이 회개는 놀랍긴 했지만, 여러 해 동안의 우상 숭배 관행이 미친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왕국을 구해 내기엔 너무 늦었다.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선지자와 왕들, 382.

므낫세는 "일곱 때"의 "저주"가 시작되는 "선금"이 되었는데, 이는 마지막 "진노"였다. 왜냐하면 "첫째 진노"는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언급한 70년의 포로 기간이 기원전 606년에 시작되었다. 여호야김 이후 두 왕이 지난 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살해되는 것을 본 다음 두 눈이 뿔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스미스는 점진적 심판 전체를 시드기야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로 시드기야의 심판을 사용했다. '악하고 불경한 통치자'였던 시드기야의 심판은, 유다의 왕관이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세우러 오실 때까지 제거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세속 권세 아래에 있으며,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곧 그 보좌의 정당한 상속자이신 메시아,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그렇게 될 것이며, 그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1844년 10월 22일,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로서, 인자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받으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셨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갔고, 그의 앞으로 가까이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다니엘 7:13, 14.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고 확인한다.

"다니엘 8: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니엘 7: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가심과,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심은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바, 신랑이 혼인에 나아가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6.

스미스는 '진노의 마지막 끝'의 핵심 요소를 다루지 않았다. 그는 유다가 므낫세 시대에 정복되었고, 시드기야보다 두 왕 앞선 때에 시작된 포로됨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운명을 맞기 전에 유다가 이미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성경적 원칙을 회피했다. 이러한 노골적인 누락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있다. 곧 성소와 군대가 짓밟힐 기간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을 다니엘서 8장 13절의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과 직접 연결한다. 그 답은 14절에 있으며, 1844년 10월 22일까지였다.

바벨론 노예 상태로의 흠어짐은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어 1844년까지 계속된 점진적으로 전개된 역사였다. 그 기간은 2,520년에 해당하며, 이는 물론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다. 그 기간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 것은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의 'mar'eh 환상'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다니엘에게 제공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그 이상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가 한 일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종결일에 대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두 가지 때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스미스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1844년에 대한 그 두 번째 증거와 관련된 기간은 13절에서 성소와 군대가 짓밟힐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3절의 질문은 이렇다. "매일의 제사와 황폐케 하는 범죄에 관한 그 이상, 곧 성소와 군대를 짓밟히게 할 일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 기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스미스가 보지 못했거나 지목하기를 피한 것은, 19절의 '진노'가 그 진노의 '마지막 끝'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이 있다면 '처음'도 있는 법이고, 다니엘은 11장에서 '첫 번째 진노'가 언제 끝났는지를 밝힌다. 그는 중세 암흑기 동안 군림하던 교황권을 지목하며, 그 진노가 성취되거나 끝날 때까지 교황권이 번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참람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36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의역한 구절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데살로니가후서 2:3, 4.

바울이 말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예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대적하는 자"는 또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게 할" "왕"이기도 하다. 두 구절 모두 로마의 교황을 가리킨다. 다니엘은 "진노가 끝날 때"까지 교황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멀고 나아가다'를 뜻한다. 36절의 그 "진노"는 "작정된 것"이었다. "determined"라는 단어는 "상처를 입히다"를 뜻한다.

1798년에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 시점에 "첫 번째 분노"가 성취되거나 종결되었다. "accomplish"라는 단어는 끝내거나 중지한다는 뜻이다. 8장 19절에서 "그 분노"의 끝은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게 되어 있던 기간의 끝을 가리켰다. 그 기간은 1844년에 끝났지만, "첫 번째" 분노는 1798년에 끝났다.

'마지막 진노'는 기원전 677년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느부갓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2,520년 후인 1844년에 끝났다. '첫' 진노는 기원전 723년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북왕국이 노예로 끌려간 때로부터 2,520년 후인 1798년에 끝났다.

다니엘서에 숨겨진 "일곱 때"에 관해 더 말할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께서는 여기서, 백성을 경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 ‘평안과 안전’을 말하는 기별이 아님을 보여 주신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실천적이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신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안일에 빠진 상태로 묘사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수준의 영적 성취에 이르렀다고 믿으며 안일하게 지내고 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되,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틀리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큰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슬픈 기만 속에 있음을 드러내지만, 그 기만 속에서도 그들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눈에 통탄스러운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지적을 받는 이들은 자신들이 높고 뛰어난 영적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참된 증인의 기별은 그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충격적인 책망으로 드러내어 그들의 안일함을 깨뜨린다. 이처럼 예리하고도 엄한 증언은 실수일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은 참된 증인이시며, 그분의 증언은 틀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증언, 3권, 252쪽.